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Jeonbuk Area

조인주*

원광대학교

Cho, In Ju

Div.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cculturation stress resulting from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 women residing in the Jeonbuk region. Data were gathered from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participating in non-profit agencies offering multi-cultural services and those who worked for business offices and stores in the Jeonbuk area.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A total of 28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10 were returned. Twenty thre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because of invalid responses, providing a final data pool of 187 respons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Korean language ability and levels of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culturation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terventions for reducing acculturation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social support

I. 서론

한국은 수 천 년 동안 백의민족이라는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해왔으나 최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 내의 외국인 체류 인구는 2008년 891,341명에서 2009년 1,106,884명으로 한 해 동안 24.2%가 증가하여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0). 한국의 다문화 사회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 여

성과 한국 남성 또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 여성들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등의 순으로 많다(Seol, 2006). 둘째는 산업 경쟁력 증진과 단순 기능 인력 확보의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 및 정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인력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순으로 노동인력이 유입되고 있다(Yang, Park, & Sohn, 2010). 이 외에도 이주

† 본 연구는 2011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Cho, In Ju

Tel: 063-850-6420

Email: injucho@wku.ac.kr

노동자의 출신국가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등 약 40여개 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입국한 새터민이다. 이러한 국내의 사회현상 변화로 한국인은 더 이상 민족주의적 정서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인종 및 민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많은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어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Statistics Korea(2011)에 의하면 2010년 한국 전체 결혼의 약 10% 정도가 국제결혼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결혼 건수 326,104 건 중 국제결혼이 34,235건이었다. 이는 2010년 한국 사회에서 새로 형성되는 10 가구 중 한 가구는 다문화 가정임을 의미한다. 그 중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전체 국제결혼의 약 3/4을 넘는(77%) 26,274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체 결혼의 약 8%에 해당한다. 또한 이 통계치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인 7,961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이를 볼 때,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은 한국 내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한 외국 여성에 대한 호칭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Han(2006)은 외국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공식적인 이민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민이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가정지원법(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에서는 ‘결혼이민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결혼이민자’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Kim *et al.*(2006)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국제결혼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이 이주와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보다는 이주라는 용어 사용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적 취득 또는 미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지만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으로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빈곤한 국가에서 여성의 빈곤화가 가중되어 경제적 의존 대상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된다(Kim, 2007).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5)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언어장애, 빈곤, 체류 신분상의 불안 등 생활전반에 걸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식 및 생활방식의 차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및 가사 분담,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제한된 사회적 교류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vey & Magana(2002)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축적되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민자가 이주국의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정한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Sahdhu & Asrabadi(1994)는 이러한 행동유형을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증오심,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정체성의 혼란이나 주변화 등으로 나누어 이 7가지 하위 차원들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Berry & Sam(1997)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국의 문화적 특성 및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화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상을 문화 충격(culture shock) 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라고 하였다. 즉, 이민자들은 이주국의 낯선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국의 전통적인 가치, 관습, 사회적 기준과 모국의 그것들과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의 충돌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모국의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체계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정체성의 혼돈과 사회적 지지 체계 상실의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의 저하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짜증, 무력감, 식욕상실, 신체화 증상,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차별감,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 등의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에 바탕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와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접촉으로 생겨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특정한 행동 유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이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과정 및 한국에서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Seol, Lee, & Cho, 2006).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생활실태에 대한 초기의 연구주제는 점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부관계, 결혼 및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었다(Ahn & Cho, 2011; Cho & Hyun, 2012; Chung & Han, 2009; Kong & Yang, 2011; Kwon, 2009; Kim, Kim, & Oh, 2011; Lee, 2010; Lee & Kim, 2010; Lim, Jeong, & Lee, 2010; Park & Cho, 2012; Yang, Song, & Im, 2009).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절한 행동 유형을 배우고 익히는데 방해요인이 된다는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예측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Ahn & Cho, 2011; Berry, Kim, Minde, & Mok, 1987; Kwon, 2009; Lee, 2010; Lim *et al.*, 2010; Ward & Kennedy, 1994; Ward & Rana, 1999; Yang *et al.*,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 예측요인 연구는 주로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요인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검증하여 왔다(Ahn & Cho, 2011). 지금까지 수행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Kwon, 2009), 부부와 남편 가족 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망, 우울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Ahn & Cho, 2011), 한국어 능력, 가족가치, 결혼만족도, 민족정체감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Lee, 2010) 등이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밝혀 연령이 적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이 보고되었다(Lee, 2010). 그러나 연령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Ahn & Cho, 2011; Yang *et al.*, 2009)도 제시되었다. 학력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Ahn & Cho, 2011; Yang *et al.*, 2009)가 제시되었다. 학력이 높은 경우 언어습득과 직업 면에서 학력이 낮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 직업유무, 종교, 수입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Ahn & Cho, 2011; Kwon, 2009; Lim *et al.*, 2010; Yang *et al.*, 2009)에서 보고되었다.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Ahn & Cho, 2011; Lee, 2010)가 있는 반면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Kwon, 2009; Yang *et al.*, 2009)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각 연구의 연구대상의 연령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Lee(2010)의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Ahn & Cho(2011)의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Y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연령대에 있어서도 Lee(2010)의 연구에서는 20대가 30.3%, Ahn & Cho(2011)의 연구에서는 48.4%, Y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52.6%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심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연구자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변수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Ahn & Cho(2011), Y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우울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울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국외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Hovey & Kiang, 1996; Salgado de Snyder, 1987). 한편, Kwon(2009)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파악하였

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태도를 말하는데(Coopersmith, 1967), 개인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Brown & Mankowski, 1993).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가족들을 포함한 결혼·가족관계 만족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 주목하여 왔다. Ahn & Cho(2011)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남편가족관계 만족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모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0)는 결혼생활만족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Y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시부모와의 어려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남편 가족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대상인 시부모로 접근하여 상이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부부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인 생활만족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바탕하여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이 고려되어왔다. 사회적 특성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변수로 사용되어졌다.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O'Reilly & Chatman, 1986). 가족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와 생활 정보, 경제적 지지 등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Yang *et al.*, 2009)가 있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예측 변인이 아닌 연구결과(Ahn & Cho, 2011)도 있었다.

이 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문화적응 유형, 가사분담 역할차이, 가족가치(Ahn & Cho, 2011; Lee, 2010; Yang *et al.*, 2009) 등의 연구변수들도 검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및 개입을 위한 실천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전라북도 내의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고창군, 무주군, 진안군, 순창군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YWCA 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과 결혼이주여성들이 근무하는 기업체 및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조사 장소에서 회수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먼저 완성한 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의

3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였다. 외국어 설문지 작성 시, 해당 언어의 전문가들에게 번역 및 감수를 의뢰하여 외국어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1년 3월 20일부터 4월 19일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280부였고, 그 중 21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75%로 나타났다. 그 중 결측 값이 많은 23부를 제외한 187부의 설문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세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Park(2011)과 Cho & Hyun(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 &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중 지각된 차별감과 향수병을 사용하였다. 향수병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 가장 높은 연구결과(Ahn & Cho, 2011)를 토대로 선정하였고, 지각된 차별감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차별감과 대우에 중점을 두고자 선정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은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 받는다.’와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향수병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와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총 9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20이었다.

2) 독립변수

① 자아존중감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Kim, Yang, & Lee(2009)가 한국어로 번역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역으로 제시된 5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649이었다.

② 우울증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증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척도를 Cho(2007)가 한국어로 번역한 2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거의 없다(0)’, ‘가끔(1)’, ‘자주(2)’, ‘거의 항상(3)’)로 측정하였다. 역으로 제시된 4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울증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65이었다.

③ 생활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연구에서 Kim(2007)이 사용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현재와 과거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를 묻는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나는 생활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한 편이다.’, ‘앞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할 일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역으로 제시된 3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36이었다.

④ 사회적 지지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2010)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적용한 문항 중 주위사람들과 지역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의 하위척도 1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주위사람들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 주위사람들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연구대상자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 줌 등의 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사람들과 지역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2이었다.

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나이, 결혼기간, 출신국가, 학력, 직업, 가족 월평균 수입, 종교, 한국어 실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이는 조사 당시의 나이를 기입하게 하였고, 결혼기간은 조사 당시 남편과 결혼한 기간을 기입하게 하였다. 출신국가는 연구대상자의 출신국을 기입하게 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1), 중졸(2), 고졸(3), 전문대졸 이상(4)’로 측정하였고, 직업은 ‘없음(0)’과 ‘있음(1)’로 측정하였다.

가족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1),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3), 잘 모르겠음(4)’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가족 수입 인지도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잘 모르겠음’을 응답범주에 포함시켰다. 종교는 ‘없음(0)’과 ‘있음(1)’로 측정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하는가에 대한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빈도와 백분율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증,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한국어 실력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계수 분석과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심리적, 사회적 특성 변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나이의 범위는 19-62세이며, 평균 나이는 31.44이었다. 연령대 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5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39세가 33.2%, 40세 이상이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6년 이상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년 미만과 2년-4년 미만이 각각 24.1%, 4년-6년 미만이 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s	N	%	Variables	N	%
Age			Education		
Range	19-62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less	21	11.2
Mean(SD)	31.44(8.13)		Middle school graduate	49	26.2
29 or less	94	50.3	High school graduate	76	40.6
30-39	62	33.2	2-year college graduate or more	41	21.9
40 or more	31	16.6	Work status		
Years of marriage			Working	62	33.2
Less than 2 years	45	24.1	Not working	125	66.8
2-less than 4 years	45	24.1	Monthly income		
4-less than 6 years	41	21.9	Under 100 million won	28	15.0
6 years or longer	56	29.9	100-199 million won	81	43.3
Place of birth			200 million won or more	33	17.6
Vietnam	77	41.2	Not knowing	45	21.2
China	41	21.9	Religion		
Philippines	41	21.9	Having religion	124	66.3
Others	28	15.0	Not having religion	63	33.7

경우, 베트남 출신이 4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각각 21.9%, 기타(캄보디아, 몽골, 우크라이나, 태국 등)가 1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26.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21.9%,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직업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33.2%, 없다는 응답이 66.8%로 직업이 없는 연구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100-20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 모르겠음이 24.1%, 200만원 이상이 17.6%, 100만원 미만이 15%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24.1%는 그들 가정 수입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들은 가정 내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종교에 있어서는 없음이 33.7%, 있음이 66.3%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가 없는 연구대상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변수의 특성

연구변수의 특성은 <Table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한국어 실력 점수의 범위는 1-5이며, 한국어 실력 평균 점수는 2.86으로 중간 점수인 3점에 비해 중간 이하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실력 4문항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듣기 점수가 2.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읽기 2.90, 말하기 2.82, 쓰기 2.7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가능 점수 1-5점 범위에서 평균은 3.40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0-3점 범위에서 평균은 1.04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 변수와 달리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완성된 응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1-5점 가능점수 범위에서 평균이 3.38로 나타나 중간정도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1-5점 범위에서 평균이 3.20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간점수 이상으로 주위사람과 전문가의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5점 범위에서 평균 점수가 2.58로 나타나 중간 점수 보다 낮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3.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그들의 조국과 조국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평균 점수 2.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문항은 연구대상자들은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슬픔을 느낌으로 평균 점수가 2.85였고, 뒤를 이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가 2.71,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가 2.56, ‘한국에서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가 2.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연구대상자들은 고향 및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과 기회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총 9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한국에 남아야 할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지 결정할 수 없어서 미래가 걱정된다는 문

<Table 2> Descriptive Finding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N	Range	Mean	S.D.
Korean Ability	187	1-5	2.86	.86
Self-esteem	187	1-5	3.40	.52
Depression	129	0-3	1.04	.47
Life Satisfaction	187	1-5	3.38	.51
Social Support	187	1-5	3.20	.71
Acculturation Stress	187	1-5	2.58	.73

향으로 평균 점수가 2.33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2.35,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 받음이 2.42,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낌이 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나이와 결혼기간의 상관계수가 .77로 .70보다 높게 나타나 두 변수 중 선행연구에서 주요 연구변수로 사용된 나이를 회귀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고 결혼기간은 모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67에서 .95 사이이고, 분산팽창요인은 1.05에서 1.48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행하는 회

귀분석모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나이, 학력, 직업 유무, 수입인지 여부, 종교 유무, 한국어 실력을 포함하였고,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증, 생활만족도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특성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심리적 특성 요인과 사회적 특성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이다. 그 결과 모델 1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설명력은 약 10%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3.19, p < .01$). 모델 1에서는 나이($\beta = .16$), 학력($\beta = -.16$), 한국어 실력($\beta = -.21$)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p < .05$). 즉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 심리적 특성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그 결과 모델 2의 문화적응 스트레

<Table 3>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All Study Variables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Age	1											
2. Years of marriage	.77***	1										
3. Education ^a	.46***	.43***	1									
4. Work status ^b	.29**	.31***	.17	1								
5. Monthly income ^c	.06	.12	-.07	.12	1							
6. Religion ^d	.11	.29**	.14	.03	.01	1						
7. Korean ability	.34***	.40***	.40***	.22*	.03	.14	1					
8. Self-esteem	.13	.07	.22*	.01	.01	.09	.24**	1				
9. Depression	-.14	-.20*	-.24**	.04	-.09	-.14	-.13	-.18*	1			
10. Life satisfaction	.04	.01	.12	.05	.06	-.03	.14	.15	-.32***	1		
11. Social support	-.07	.06	.04	-.14	-.05	-.07	.12	.16	-.25**	.30**	1	
12. Acculturation stress	.11	.08	-.11	.11	.07	-.11	-.10	.05	.27**	.06	-.00	1

Note: ^a Education was grouped into 4 levels: 1 = elementary school or less, 2 = middle school, 3 = high school, 4 = 2-year college or more.

^b Work status was grouped into 2 levels: 0 = not working, 1 = working.

^c Monthly income was grouped into 2 levels: 0 = not knowing income, 1 = knowing income.

^d Religion was grouped into 2 levels: 0 = not having religion, 1 = having religion.

* $p < .05$, ** $p < .01$, *** $p < .001$

스 영향요인 설명력은 약 17%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2.65, p < .0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만으로 검증한 모델 1에 비해 약 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는 나이($\beta = .21$)와 우울증($\beta = .32$)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p < .05$). 즉 나이가 적을수록, 우울증상을 적게 경험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검증할 때에는 영향력을 미쳤던 학력과 한국어 실력은 심리적 변수를 투입하니 그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이는 심리적 요인의 변수들에 의해 그들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3은 모델 2에 사회적 지지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형이다. 그 결과 모델 3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설명력은 약 17%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2.43, p < .05$). 이는 모델 1에 비해 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모델 2와는 같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의 각 변수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나이($\beta = .22$)와 우울증($\beta = .33$)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p < .05$) 모델 2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향력은 우울증, 나이의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증을 적게 경험할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5점 범위에서 전체 평균 점수가 2.58로 중간 점수인 3점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Lim *et al.*(2010)이 전라남북도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 점수로 보고한 2.59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Y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2.35로 나타났고, 전북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2010)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과 적대감, 언어스트레스, 향수병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on of Acculturation Stres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26.63	2.44		4.74	6.60		3.35	6.88	
Age	.13	.07	.16*	.16	.08	.21*	.17	.08	.22*
Education	-1.15	.56	-.16*	-.79	.72	-.11	-.77	.72	-.11
Working status	.82	1.09	.06	.99	1.24	.07	1.11	1.25	.08
Income	.54	1.13	.04	1.01	1.31	.07	1.07	1.32	.07
Religion	-.88	1.00	-.06	-.82	1.14	-.06	-.74	1.15	-.06
Korean ability	-.40	.15	-.21**	-.30	.19	-.15	-.32	.20	-.16
Self-esteem				.16	.12	.12	.15	.12	.11
Depression				.21	.06	.32**	.22	.06	.33**
Life satisfaction				.15	.09	.16	.13	.08	.14
Social support							.05	.06	.07
R ²		.10			.17			.17	
Adjusted R ²		.07			.10			.10	
F		3.19			2.65			2.43	
P		.005			.008			.011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2.50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다. 충청남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Ahn & Cho(2011)의 연구에서는 2.50으로, 그리고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Kwon(2009)의 연구에서는 2.79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내용으로는 그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모국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느끼는 슬픔이었고, 그 뒤를 이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차별을 받고, 한국에서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으로만 검증한 경우, 나이, 학력, 한국어 실력이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심리적 특성 변인을 추가한 모델 2와 모델 2에 사회지지 변인을 추가한 모델 3의 회귀분석 결과, 나이와 우울증이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에 심리적 특성 변인,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특성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학력과 한국어 실력은 영향력이 사라져 그 영향력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서 우울증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수준은 일반 인구의 우울 수준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중 5.3%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반면 일반인의 우울 경험은 5%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적응의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사정

및 진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진단,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 또는 감소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시,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연령이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취약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 진다. 즉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연령을 고려한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한국어 실력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서 2.86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 이하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는데,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창한 이중 언어를 사용하기까지는 배우는 사람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역사회 내에 결혼이주여성 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한국어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문화 및 사회에 적응을 잘 하여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낯선 땅,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가 전라북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비확률표집법으로 편의 모집한 결혼이주여성들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국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의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

고 표본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조사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체계적인 종단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 변인들 중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자아존중감, 우울증,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만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검증하여 그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 우울, 사회적 지지

REFERENCES

- Ahn, J. & Cho, J. H. (2011). Psychosocial and cultur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the Chungcheongnam-do area of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2, 137-176.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findings* (pp. 201-23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e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pp. 291-326).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21-430.
- Cho, I. J. (2007).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spousal abuse in Korean American male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ho, I. J. & Hyun, A. (2012). Structural relations among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159-176.
- Chung, K. S. & Han, J. E. (2009).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87-114.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Cultural Anthropology*, 39(1), 196-243.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 Hovey, J. D. & Kia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ir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183-1192.
- Kim, H. S., Kim, H. J., & Oh, J. H. (2011).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importa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1), 27-51.
- Kim, J. R. (2007). *The status of intermarria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Myungji University.
- Kim, J. (2010). *A study for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yul University.

- Kim, M. J., Yoo, M. K., Lee, H. K., & Chung, K. S. (2006). Being "Korean" wives: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Korean Journal of Cultural Anthropology*, 39(1), 159-176.
- Kong, S. Y. & Yang, S. E.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101-117.
- Kwon, B. S.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 Lee, C. J. & Kim, S. G. (2010).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emale foreign im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4), 73-91.
- Lee, J. S. (2010). The variables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6), 919-932.
- Lee, K. E., & Park, C. J. (2009). Economic evaluation on supporting programs for marital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21(4), 119-143.
- Lim, E. M., Jeong, S. J., & Lee, S. J. (2010).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s cultural adaptation types and acculturation str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957-973.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Plan for empowerment of servic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life cycle.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O'Reilly, C. III. & Chatman, J. (1986).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attachment: The effects of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492-499.
- Park, E. H. (2011).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residing in Jeonbuk. Unpublished master thesis, Wonkwang University.
- Park, E. H. & Cho, I. J. (2012).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2), 29-54.
- Park, J. W. (198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measur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algado de Snyder, V. N.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475-488.
-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eol, D. (2006). Statu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Seol, D., Lee, H. & Cho, S.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Statistics Korea (2011). Annual report on the marriages and divorces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Korea.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3), 329-343.
- Ward, C., & Rana, D.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422-442.
- Yang, O. K., Park, H. K., & Sohn, G. H.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among migrant worker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141-175.

Yang, O. K., Song, M., & Im, S. W. (2009).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134-168.

접 수 일 : 2012. 07. 09.
수정완료일 : 2012. 09. 27.
게재확정일 : 2012. 10. 08.